

재생에너지/연료전지

그린산업/ESG 한병화
bhh1026@eugenefn.com

텍사스,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급증

“ 텍사스, AIDC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2025년말 기준 미국 주별 데이터센터 누적 설치량은 버지니아가 11.6GW로 1위였으나, 올 해를 기점으로 텍사스가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지난 해 말 기준 텍사스의 설치량은 10.7GW였으나, 계획이 확정된 파이프라인은 85.4GW로 2위 버지니아의 29.5GW 대비 월등히 커. 주 전력당국인 ERCOT에 전력 접속 신청을 한 규모는 470GW를 상회한다는 보도까지 감안하면 텍사스는 미국 AIDC의 핵심 거점이 된 상태. 텍사스가 AIDC의 수도가 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력을 확보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임. 가스는 물론 태양광, 풍력까지 설치량이 급증하고 있어. 2025년 기준 ERCOT의 가스 발전량은 204TWh로 1위, 풍력, 태양광은 각 116TWh, 57TWh.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은 가스가 3%, 풍력, 7%, 태양광 46%. 특히 태양광의 성장이 놀라운데, EIA는 지난 해 텍사스 전력 발전 순증분의 86%, 올 해에는 전부를 태양광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 이 추세면 2027년에는 ERCOT의 풍력, 태양광 발전량이 가스발전을 처음으로 추월할 것이 확실시됨. 텍사스의 AIDC는 재생에너지 없이는 불가능해지는 것

“ 미국 중간 선거 이후의 움직임이 중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미국 전역의 AIDC에 대한 압박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 사업자들은 공화당 다수인 지역으로 성장 거점을 이전하려고 하겠지만, 텍사스와 같이 전통적인 딥 레드 스테이트에서도 AIDC에 대한 거부감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 따라서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민들에 대한 설득율을 높이는 것. 환경오염, 물 사용,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 제공이 대부분의 AIDC 신설의 표준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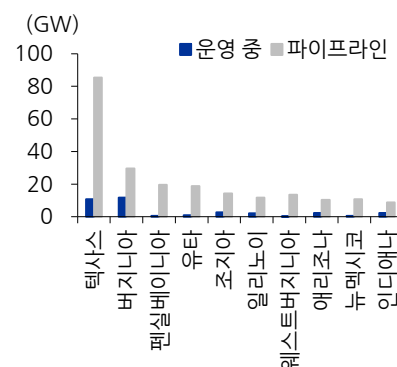
“ 오라클, 스타게이트 AIDC 살리기 위해 2GW 재생에너지 계획 발표

오라클과 오픈AI의 뉴멕시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현지의 소송과 법원 판결로 중단된 상태. 2.2GW의 가스발전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Bloom Energy의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발표. 이 계획도 동의를 얻지 못하자 지난 주에 2GW 재생에너지를 뉴멕시코에 확보하겠다고 선언. 해당 AIDC는 연료전지로 가동할 계획이나, 동일한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매칭해서 건설함으로써 뉴멕시코 전체에는 환경 오염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것. 오라클의 이번 발표는 AIDC 넘비에 대한 표준 대응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 가스와 디젤 발전의 일정 부분을 연료전지로 대체하고 그래도 늘어나는 탄소배출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의 대기오염 물질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상쇄시키는 구조. **가파르게 성장만 바라보던 AIDC 산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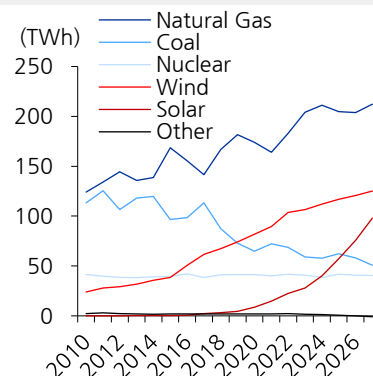
OVERWEIGHT

미국 주별 데이터센터 CAP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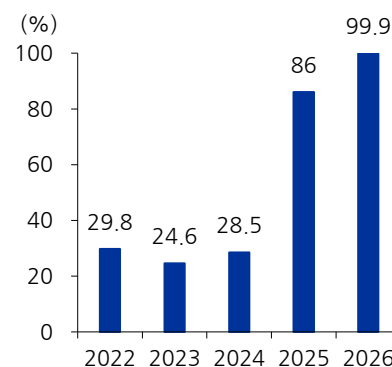
자료: dcmapi.us, 유진투자증권

텍사스 발전원별 전력 생산량 추이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텍사스 전력량 순증가분 중 태양광 차지 비중



자료: EIA, 유진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06.30 기준)